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순종 제목 : 쉬우면서도 어려운 순종 성경: 창세기 12장 1-5절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12:1-5)

세상에 순종만큼 쉬운 것도 없지만, 또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순종에는 세가지가 있다.

1.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 - 관계 때문에 순종.
2. 생각을 정리하고 믿고 순종
3.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채 억지로 순종

아무런 생각없이 하는 순종하는 것은 기간도 짧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것이니 논외로 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 하나님은 생각을 정리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력을 주셨으며,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셨다.

- 사람은 순종할 때 강력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강력한 결속력을 맛보게 되고 용기와 자존심과 소속감 등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적인 순종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다른 어떤 경우보다 수행능력이 배가된다.

- 순종은 매우 유익하며 재미있으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종을 오염시키려고 애를 쓴다.

- 마귀는 제일 먼저는 생각을 방해한다.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정한다. 지금은 아니다. 너만 손해다. 그렇게 하면 않된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어차피 나중에 되돌아 온다. 등등 열정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만가지의 생각들을 나열한다.

- 만약 그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힘든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가지 제공한다.

- 만약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껄끄러운 감정적인 이유들을 만가지 제공한다.

- 만약 그가 육체적인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부적절한 히스테리칼한 이유들을 만가지 제공한다.

- 만약 그가 순종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들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는 약 3만가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해 낼 것이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취감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

순종은 훈련이다.

순종은 연습이다.

순종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고, 열정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왜냐면 마귀는 가끔마다 나의 생각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 넣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내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 넣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마귀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에 순종한다.

–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논리를 더 선호하고 더 의롭다고 여긴다.

–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논리를 더 선호하고 더 의롭다고 여긴다.

–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는? 동의하고 결탁하고 순종하는 의다.

–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한다.

–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세분은 동격이시며, 신격이시다. 즉 신적 DNA 가 동일하시다는 뜻. 이처럼 신격이신 분은 온 우주에 오직 이 세분뿐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시다는 뜻.

– 세분은 서로 깊이 침투되어 계셔서 서로 동의하고 결탁하여 존재하신다. 서로 증인이 되시며 서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다.

–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오직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들 중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주셨고, 사람의 존재 양식도 하나님을 닮게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탁하게 하셨고, 이 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결탁하게 하셨다.

– 그래서 이 셋이 서로 동의하고 결탁하여 순종을 이루며 정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게 하셨다.

– 서로 동의하거나 결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순종하거나 하면 복이 되지 않는다.

– 그래서 순종이란, 강요나 도덕이나 윤리이기 이전에 사람의 존재

양식이다.

–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마귀가 순종을 교란하기 때문에 어렵다.

– 그래서 단순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이 하는대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은 아니다.

– 복이 부족하거나, 계획하는 일들이 자주 무산되거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들이 멈추어 있거나, 주변에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없거나, 진실한 대화 상대가 없거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내 속에서 생각들이 자주 싸우거나, 양심에 가책을 자주 느끼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면 순종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 순종에는 단순한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 원리대로 실천하면 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의 원리대로 복받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순종 제목: 순종하는 방법 말씀: 잠언 23장 12-23절

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 진리를 사도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 23:12-23)

아름이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 스스로는 매우 개인적이고 거의 모든 일들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였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매우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훈련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고, 이제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였다.

One of the most memorable teaching moments in ALICT for me was learning to ask for help. I am very individualistic and almost always do things on my own. During one activity that required asking for help I concentrated and enthusiastically work to try my best to complete the task by myself but found that I still could not make it; even then, I refused to give up. After a long time I was very exhausted and felt like crying, finally I shouted I need help! From this I have learnt the valuable lessons that God wants me to depend on Him and for us to help each other. I have changed my thinking, so now when I have a problem, the first thing I do is depend on Him and I ask others for help and prayer.

–한국인으로 ALICT 훈련에 참여하였던, 아름이가 쓴 글.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23:13)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 라 (잠26:3)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29:15)

훈육이 기본적으로 마귀의 말을 잡는데 사용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은 항상 마귀의 뜻이 사람의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

–아이가 어렸을 때 기본적인 훈육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평생동안 순종이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훈육전통은 되물림 되는데, 스스로가 훈육의 전통이 없으면 그는 자녀를 훈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린이가 된다면, 이 훈육은 아이의 인격을 다치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훈육과 폭행은 다르다. 같은 매질이라도 아이의 인격이 손상을 입으면 폭행이고, 아이의 행위나 말투, 생각이 교정을 받으면 훈육이다.

–폭행이란 너는 못된 아이이고, 너의 아비나 어미를 닮아서 너도

못되었고, 그래서 너는 맞아야 한다고 때리는 것이 폭행이다. 폭행 그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고, 아이속에 있는 마귀는 반항심과 적개심을 품게 한다.

-훈육이란 너는 나쁜짓을 해서는 않되는 아이고, 그런 나쁜짓을 네 가 하면 너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나쁜짓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훈육이다. 훈육을 통해서 마귀는 쫓김을 받는데,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혼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되거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훈육은 효과가 없으며, 결국 길고긴 코칭이나 훈련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성경공부를 통한 코칭이 매우 유익하게 되는데, 특히 일대일 양육과 이대일 양육이 효과적이다.